

◆ 출제문제

- 인문계열 : 오전반

[문항 1] 다음 <제시문 1>~<제시문 3>에 나타나는 두 가지 입장을 비교하고, 자신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입장을 선택하여 그 근거를 밝히시오.

<제시문 1>

20세기 초 등장한 ‘집단 지성’ 개념은 원래 곤충학에서 나왔다. 각 개체는 지능이 없지만 전체 무리는 고도의 지능체계를 형성하는 개미 등의 군집을 설명하는 데 쓰였다. 이 말이 널리 사용된 것은 2000년대 초다. 사용자들이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가 되어 콘텐츠를 혁신하는 ‘웹 2.0’이 집단 지성의 전형적 사례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집단 지성은 굳이 조직이 없이도 스스로를 조직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다. 권위를 벗어던지고 고도의 조직화된 활동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단독으로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맡은 임무를 수행한다. 전통적인 인식에 따르면, 복잡한 과업은 명확한 노동 분업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당연히 누가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조직 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분배한다.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극진한 대접을 받을 때 가장 흡족해 한다. 그러나 디지털 공동생활체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상상력을 ‘무보수’로 다른 사람을 위해 생산물을 만드는 데 투입한다. 집단 지성의 영역에서는 혁신이 특별한 장소에서 일하는 특별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수 저작자들의 누적된 작업에서 나온다.

<제시문 2>

소셜 미디어는 거대한 집단 지성과 휴먼파워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이다. 필자가 186명과 공저한 이 책은 소셜 미디어를 주제로 한 책이자, 소셜 미디어의 힘을 십분 활용해 쓴 책이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구글독이나 위키 등의 협업 도구로 글을 써 나갔고, 트위터를 이용해 사람들의 피드백을 요청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책에 어떻게 기여할지 감을 잡지 못했지만, 책의 뼈대와 내용들이 가시화될수록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조금씩 코멘트를 주기 시작했다. 책의 본문을 직접 수정하기도 했고, 아예 새로운 장을 만들기까지 했다. 책에는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사람들은 자신의 공헌이 책에 반영된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얼마든지 가져가서 쓰라"고 도움을 주었다. 외국인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불과 석 달 만에 책의 모든 본문이 완성되었다. 책은 처음에 의도했던 주제를 훨씬 뛰어넘었다. 세상의 모든 변화는 모든 존재의 거리가 짧아지는 방향으로 진화한다는 '간(間)의 거리' 철학을 이끌어 냈기 때문이었다.

이 책은 186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공동저자로 참여했고, 추천사만 해도 유명인을 포함 100여명에 이르렀다. 무명의 제약은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유명하지 않지만, 우리는 유명하다. 나의 지혜보다 우리의 지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저 사람들과 함께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주는 것이 관건이다. 나는 인세 수익보다 훨씬 큰 이익이 되는 트래픽을 얻었다. 트래픽은 현존하는 가장 가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제시문 3>

사람들은 대체로 CEO의 독단적 결정보다 민주적 의사결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믿는 성향이 있다. 민주적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CEO들은 광고를 제작할 때 이른바 '광고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한다. 홍보, 영업, 마케팅, 제품개발자, 외부 자문교수, 임원, CEO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발된 위원들이 각자가 의사결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지분만큼 발언하고 영향을 미친다. 절차적으로는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결과까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모든 의견이 반영된 결정은 모든 의견을 채택하는 것과 다름없다. 광고에서 모든 것을 말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과 같다. '광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오길비는 "사공이 많은 위원회를 상대로는 좋은 광고를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적이란 미명 아래 기계적인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특히 창의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광고나 신제품 개발 때 더욱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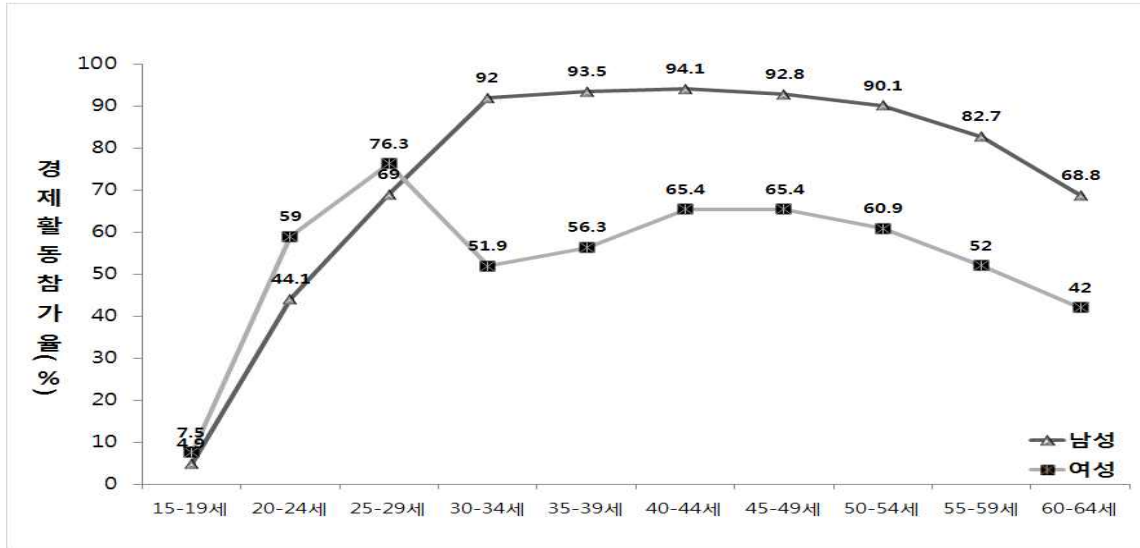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 한 인터뷰에서 "애플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을 것 같나요? 하나도 없어요."라고 말했다. 다수의 평범한 의견보다 자신의 통찰력을 믿고 의사결정을 내렸기에 지금의 애플 신화가 가능했던 것이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도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성공한 광고들은 통찰력 있는 CEO의 '독단적 결정'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문항 2]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여성 경제 활동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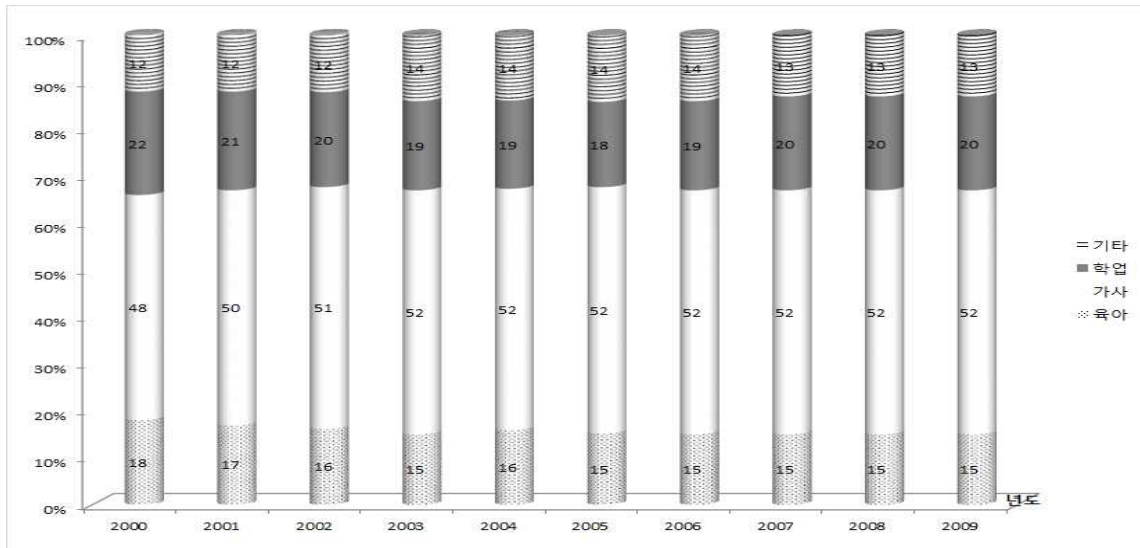
<표 1> OECD 주요 국가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15~64세) (단위: %)

한국	스위스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미국	일본	OECD평균
53.9	77.3	76.5	74.4	70.1	69	62.9	61.3

<그림 1>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2009)



<그림 2> 여성의 비(非)경제활동 이유의 변화



<표 2>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전체	16,617	11,119	5,498	33.1
남자	9,541	6,987	2,554	26.8
여자	7,075	4,132	2,943	41.6

<표 3> 주요 OECD 국가의 남녀 임금격차(2008년) (단위: %)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OECD평균
12	20	12	21	12	25	31	39	21	20	16

◆ 출제문제 해설

I. 인문계열(오전)

1. <제시형 문제> : ‘집단지성’의 의미와 기능

1) 출제의도

이 문제는 최근 정보와 지식, 소프트웨어와 관련되는 많은 분야에서 인간의 생활양식과 의사결정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는 “집단지성”이라는 개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질문한다. 특히 “집단지성”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평가기준

● 평가 요소 1 : 제시문에 나타나 있는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을 찾아 정확하게 비교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평가의 초점: 두 가지 상반된 입장에 대한 비교 능력
- 평가 세부 기준
 - ① “집단지성”을 화제로 삼아야 한다.
 - ② 최근 웹기반 환경, 정보와 지식 등이 주된 기능을 하는 분야에서 “집단지성”의 힘이 업무의 수행과 결정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공통점으로(또는 전제로) 기술하여야 한다.(‘공통점’이라는 어휘는 굳이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됨)
 - ③ <제시문 2>는 “집단지성” 현상과 기능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반면, <제시문 3>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상반된 두 입장의 차이를 명료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평가 요소 2 : 두 가지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를 적절한 근거로 뒷받침하면서 논리적으로 기술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평가의 초점: 자신의 견해에 대한 논증 능력
- 평가 세부 기준
 - ① 일관성 있게 하나의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 ② 타당하고 적절한 근거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의 예>

긍정적 입장: 민주적 협업, 민주적 의사결정, 민주정치의 확산, 개인의 가치 존중, 창의성 향상, 언론의 자유 허용, 문화와 지식의 확대와 재생산, 독창적인 표현의 자유 확대, 정보와 지식의 평등한 소유 등

부정적 입장: 사실의 왜곡과 포퓰리즘, 편협과 무분별, 획일화, 사이버 범죄와 테러의 양산,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주장 양산, 무책임한 행동과 의사결정, 잠재적 폭력성, SNS의 감시 시스템으로 인한 사생활 보장의 어려움, 기득권 강화의 수단, 저널리즘과 문화의 질적 저하 등

- ③ 글을 논리적으로 조직하여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2. <도표형 문제>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1) 출제의도

- (1)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의 규모와 고용의 질적 현황을 관련 도표들을 보고 정확히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 (2) 도표를 보고 드러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개선 방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 (3) 제시된 개선 방안에는 반드시 도표의 데이터를 통한 논리적 전개가 포함되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논술자의 창의적 의견을 평가하고자 함.

2) 도표 설명

인용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09),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10.3). 일부 수정하여 사용함.

<표1> OECD 주요 국가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OECD 국가평균 61.3%, 주요국은 65%~75%로 매우 높으나, 한국은 53.9%로 낮음

<그림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남녀의 참가율 차이 크게 나고, 30대 초반에서는 무려 40%나 차이 남. 특히, 30~34세에서 급격한 차이 보임.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지적

<그림2> 여성의 비경제활동 이유의 변화: 10년간 여성의 비경제활동 이유의 변화 없음. 가사, 육아의 이유로 경력단절 문제(비경제활동)

<표2>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현황: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41.6%)이 남성(26.8%)보다 더 높은 문제

<표3> 주요 OECD 국가의 남녀 임금격차(%): 우리나라 남녀 임금격차가 매우 주요 OECD 국가 중 가장 크게 나타나는 문제

3) 평가 기준

- **평가요소 1: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도표를 읽고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였는지 확인한다.**
 - 평가의 초점: 도표분석력 및 논리적 추론력
 - 평가 세부기준: 1) 도표를 정확히 해석하고 문제점을 제시한다.
2) 문제점을 5~7가지 제시한다.

- **평가요소 2: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도표에 근거하여, 개선 방안을 창의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확인한다.**
 - 평가의 초점: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논리적, 창의적으로 고안해내는 능력
 - 평가 세부기준:
 - ① 모든 도표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② 각 도표의 세부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③ 합리적, 창의적 방안을 제시한다.